



포트폴리오 새로 고침 “첫 단추부터 잘 꿰자”

제주청년작가회 바지, 락
10월 한달 포트폴리오전
15명 작가 컨설팅 등 거쳐
새단장 작품집 소통·공유
“지역적 특성tat 활용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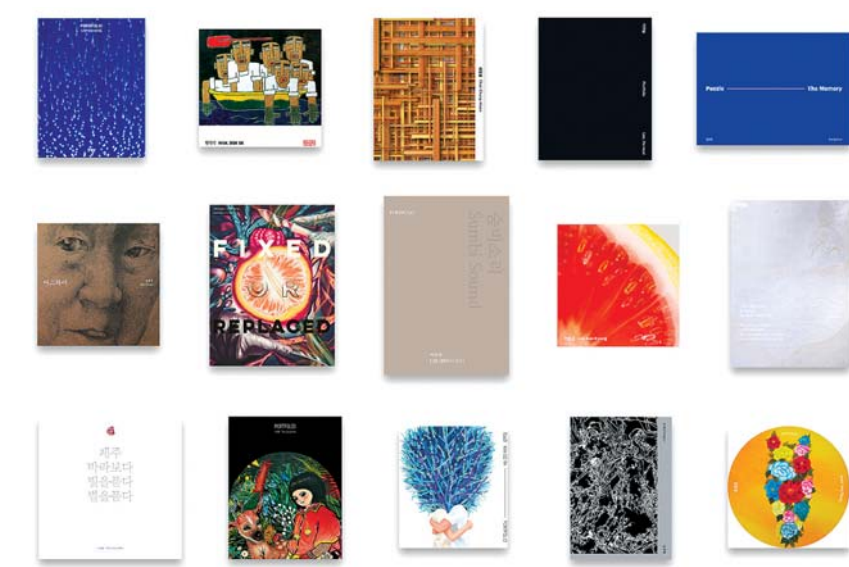
작가의 작업이나 작품 경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포트폴리오. 전시 기획자 등이 해당 작가의 과거·현재의 작품을 살펴볼 수 있는 톨로라는 점에서 일종의 이력서다.

제주지역 청년작가 15명이 이같은 포트폴리오 작성의 중요성에 주목해 ‘새로 고침’한 포트폴리오를 한데 모아 선보인다. ‘제주청년미술작가회 바지, 락’이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지원을 받아 펼치는 ‘포트폴리오 마켓

노지 프로젝트-선과장’이다.

참여 작가는 강은정, 강태환, 김가현, 김소라, 김수연, 손유진, 신승훈, 이성종, 이승수, 이은경, 이하늘, 정재훈, 조기섭, 최창훈, 현덕식이다. 이들은 포트폴리오 제작의 새로운 흐름을 반영해 작품의 성향, 기관의 특성, 지역에 따라 그것들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어떤 방식이 효과적이고 전달력이 높은지 보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10월 한달 동안 제주시 도남동 델문도 로스타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엔 감동이 상품화되는 선과장에서 모티브를 따와 기획자, 디자이너 등 전문적인 워크숍과 컨설팅을 통해 다듬어진 작가 15명의 포트폴리오를 작품과 나란히 전시한다. 전시장 자체를 포트폴리오 마켓으로 꾸며 작가 스스로 마케팅에 참여하고



제주청년작가회의 포트폴리오 마켓에 선보이는 15명 작가의 포트폴리오 표지.

현장에서 홍보하며 기획자, 관람객과 소통하고 공유할 예정이다.

개막 행사는 10월 1일 오후 5시에 열린다. 오후 3시에는 문경주 컨셉츄얼 디렉터가 초청돼 해외 유명 레지던시를 소개하는 워크숍을 마련한다.

제주청년작가회는 이번 기획에 대해 “서울 혹은 해외의 현장에서 직접 작품을 보여주고 평가를 받기 힘든 지역적 특징 때문에 전시를 위한 첫

단추인 포트폴리오 구성과 디자인은 제주에서 활동하는 작가에게 가장 큰 고민”이라며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창작자 입장에서 해석되고 구성되었던 주관적인 포트폴리오 방식에서 벗어나 작품 세계관에 대한 최소한의 객관성을 정립하고 자신을 알릴 수 있는 포트폴리오로 발전시키려 했다”고 밝혔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대마도에서 4·3 수장 희생자 녀 위무

일본 4·3한라산회 주관
이달 29일에 4·3위령제

제주4·3 등을 기억하려는 일본인들로 구성된 ‘제주4·3한라산회’가 이달 29일 일본 대마도(쓰시마)에서 ‘제3회 제주도 4·3사건 희생자 대마도·제주 위령제’를 연다. 당초 제주월미리당영동

국보존회가 문화재청 지원을 받아 대마도 현지에서 제주4·3한라산회와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던 71주년 4·3위령제가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한·일 관계 악화에 따라 취소된다는 소식에 일본의 민간 단체를 중심으로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지에 따라 준비됐다.

이번 행사는 4·3 시기에 수장 당해 대마도 해협까지 떠돌리던 희생자들

위령하는 자리다. 지난 4월 일본인들이 제주를 찾아 제주시 건입동 중정공터에서 4·3위령제를 개최했고 이번엔 제주 4·3유족, 문화예술인 등이 쓰시마에 모여 추념 의식을 벌인다. 제주4·3한라산회가 주관하고 재일교포 김시중 시인, 대마도의 에도 유카하루, 송승문 제주4·3유족회장, 소리꾼 안복자, 제주국보존회장인 서순실 심방이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치러지는 위령제는 공양탑 참배, 유체 매장지 참

배, 위령굿, 주관 단체와 주최자 인사 등으로 진행된다. 서순실 심방이 위령가를 집전하고 안복자의 공연도 예정되어 있다.

나가타 이사무 제주4·3한라산회 고문은 “대마도와 제주도를 연결하는 4·3사건 위령제는 고인들이 그렇게 하였듯이 국경을 넘어서 한일 양국의 민중이 해내야 할 운명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평화와 우애의 정신으로 하나된 한일 민중이 위령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선희기자

문화가 쏘지

피아니스트 나누리 독주회

예술기획 켈로드가 이달 28일 오후 5시 서귀포시 안덕면 켈로드아트홀에서 피아니스트 나누리 독주회를 연다.

‘유럽으로의 초대’란 이름을 단 이날 공연에서 나누리는 유럽 작곡가 3명의 걸작을 연주한다. 바흐의 ‘파르티타 2번’,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트럼펫’, 슈만의 ‘교향적 연습곡 작품번호 13’이다. 나누리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실기 수석으로 입학해 예비학교 과정을 수료했고 지금은 베를린에서 활동하고 있다. 입장료는 2만원. 전화·문자 예약 문의 010-3360-8919.

해녀소제 ‘비바리 연가’ 공연

제주 퍼포먼스단 몸짓이 해녀문화 우수예술창작 지원사업으로 ‘비바리 연가’를 공연한다.

이달 28-29일 오후 5시 산지천 북수구 광장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제주 해녀의 삶을 춤과 몸짓으로 풀어내는 자리다. 조그만 여자 아이가 점점 자라서 해녀로 성장하고 어느 날 물질을 하다 풍랑에 휩쓸려 이아도로 닿게 된다는 이야기를 담는다. 연출 강중임, 안무 고지선. 퍼포먼스단 몸짓은 “관객들이 해녀문화의 가치를 다양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고 했다. 문의 010-9944-6703.

드론항공 VR촬영 실무과정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10월 7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되는 ‘드론항공 VR촬영 실무과정’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제주한라대 산학협력단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콘텐츠원캠퍼스 구축 운영사업으로 마련되는 이번 교육은 드론과 VR 산업동향, 촬영 이론과 실습, 드론 VR콘텐츠 제작 편집과 마스터링 후반작업으로 짜여진다. 홈페이지(www.ofjeju.kr)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click0925@ofjeju.kr)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735-0615.

창작오페라 ‘해녀’ 오디션

사단법인 오페라인제주가 11월 12일 초연되는 창작오페라 ‘해녀’ 오디션을 실시한다.

모집 배역은 명자(메조소프라노), 미주(소프라노), 정숙(소프라노), 현석(테너), 광렬(바리톤)이다. 참가신청서, 경력서(학력, 연주경력 포함), 서약서를 작성해 10월 4일까지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웹하드(아이디 civil9922, 비밀번호 0000, 오페라인제주 폴더)에서 서약서, 악보(9월 30일부터 가능)를 확인할 수 있다. 오디션은 10월 6일 열린다. 문의 064)748-7879.

제주합창단이 뒤늦게 부르는 ‘만덕’

객원지휘로 내달 2일 공연
뮤지컬·가요 등 합창 편곡

지휘자 공석으로 연주 일정 차질을 빚어온 제주도립 제주합창단이 객원지휘자를 초빙한 무대로 오랜만에 전문 공연장에서 청중들과 만난다.

10월 2일 오후 7시30분 제주아트센터에서 열리는 기획 연주회는 나주시립합창단 김정연 상임예술감독이 지휘봉을 잡는다. 뮤지컬 음악, 가요 등을 합창곡으로 편곡해 청중들에게 친숙한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이날 제주합창단은 올해 대구뮤지컬

페스티벌(DIMP)에 참가했던 제주시 창작뮤지컬 ‘만덕’에 나오는 대표곡을 합창으로 편곡해 들려준다. 비디오 게임 ‘뮌명IV’의 배경음악, 김건모의 ‘스파드’, 인순이의 ‘아버지’ 등 귀에 익숙은 음악도 합창으로 빛어낸다.

관람료는 무료. 제주예술단 홈페이지나 제주예술단 SNS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시는 “김정연 객원지휘자만의 음악 해석을 통해 클래식에서 흥미가 없는 관객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준비된 공연”이라며 “조화로운 하모니와 한국적 합창 사운드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문의 064)728-2711. 전선희기자



2019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찾아오시는 길
|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해안로 7-6 김녕해수욕장

제주도는 약 180만년 전부터 1,000년 전까지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화산섬으로 화산지형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세계지질공원은 지역구성원들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지질 공원의 모델로 만들어 나갈 것 입니다.

해설사 동행 탐방 프로그램 ※출발 10분전까지 본부석 현장 접수

2019. 10. 3(목) ~ 10. 6(일)	10:00, 11:00, 14:00 1일 3회	전문 해설사 2인과 동행
---------------------------	------------------------------	---------------

전문가와 함께하는 지질 탐방 프로그램

※ 회당 30명 선착순 전화 접수 / 사전예약제 (T. 064-750-2523)

10. 03 (목)	13:00	지질	전용문
10. 04 (금)		곤충	양경식
10. 05 (토)		역사·문화	강경희
10. 06 (일)		지질	류춘길



김녕, 월정

지질트레일

Gimnyeong-Woljeong Geotrail

2019. 10. 3. 목

~

10. 6. 일

장 소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월정리 일대

개막식 2019년 10월 3일(목) (김녕해수욕장 주차장 특설무대)

주 최 제주특별자치도
후 원 국립공원공단 | 대한지질학회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제주관광공사
참 여 기 관 구좌읍사무소 | 구좌읍이정단협의회 | 구좌읍주민자치위원회 | 김녕리 | 월정리 | 한라일보사

주 관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트레일위원회



10. 3 (목)

개막식전 행사(09:00~11:00)

- 김녕 전통 행사 ‘돛제’
- 김녕 전통 민속 공연 ‘멀치 후리기’
- 가수 ‘주미성’ 축하공연
- 가수 ‘강수지’ 특별공연

개막식(11:00)

- 내빈소개
- 개회사, 환영사, 축사
- 기념촬영

10. 4 (금)

공연(10:00)

- 김녕 마을 풍물단 공연

10. 5 (토)

공연(10:00~12:30)

- 김녕 마을 살바덴스
- 제주해녀홍보가수 ‘임은경’
- 재소
- 투연
- 청월

10. 6 (일)

공연(10:00~12:30)

- 구좌중앙초 난타 공연
- 소금인형
- 오바블로우
- 더로그
- 홀츠밴드

“ 2019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김녕-월정 지질트레일 개최를 축하합니다. ”

☎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트레일위원회 T. 064)750-2523, 2291



한라기획

(주)카리반 제주총판, (주)대원저서 제주총판

물결천막, 자바라, 각종 행사천막 제작·판매·대여
각종 행사, 단체식사 주문환영(특별저가비율전문)

• 사무실 : 744-6688
• F A X : 749-8668
• H - P : 010-2623-6688
• jejuhanla@daum.net